일반 기고 3

'붉은악마 현상'은 사회 변동의 동력일 수 있는가?

김정훈

대~한민국

2002년 6월, 전국은 붉은 물결이었다. 700만이라는 거리응원 인파도 놀라운 일이지만, '붉은 광장,' '해방구' 등 금기시됐던 단어들이 연일 각종 언론매체의 첫머리를 장식했다. 분명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그 새로운 현상에 당황해 하면서도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6월에 대한 해석은 크게 문화적 해석과 정치적 해석으로 나뉘어진다. 문화적 해석은 6월의 거리응원, 즉 '붉은악마 현상'을 축제로 해석한다. 이 해석은 우리의 삶이 너무 억압되어 있는 반면 배출구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해 붉은악마 현상을 일상적 억압의 배출로 설명한다. 나아가 6월의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문화적 탈출구가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적 해석은 좌우를 막론하고 민족주의에 근거한다. '붉은악마 현상'은 우리에게 깊이 내재한 민족의식의 발로였고, 거리응원을 통해 민족적 동질감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확인한 혹은 획득된 민족의식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는 각 입장에 따라 다양하다. 정부측은 그것을 국운융성의 계기로 선전하고, 진보주의자들은 새로운 사회개혁의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극우주의자들은

6월의 붉은 광장에서 북의 김일성과 싸울 20대의 애국주의적 전사를 발견하기도 한다. 한편으로 탈민족주의자들은 민족주의의 표출에서 국가주의와 파시즘의 위험을 감지하기도 한다.

'붉은악마 현상' 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6월 당시와 직후의 수많은 글처럼, 좀더 명확한 연구가 나오기까지를 메우는 글 역시 필요하다. 이 글은 붉은악마 현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 중 그것이 시민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은 6월의 현상에서 시민들의 공동체성, 민족주의, 자발성을 읽어내었고, 그것이 향후 새로운 사회개혁의 에너지가 될 것이라 주장했다. 반면에 일부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국가주의와 파시즘의 혐의를 잡았고, 그것이 건전한 시민사회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했다. 과연 6월은 사회개혁의 에너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글은 이것에 대해 묻고자 한다.

단순화를 넘어서

'붉은악마 현상' 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그 6월에 이 땅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점이다. 6월을 월드컵과 무관하게 보낸 사람부터 그것을 저주하면서 보낸 사람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이 땅에는 존재했다. 이 점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그 6월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은 거짓에 가까운 것이다.

이런 전제는 6월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붉은악마 현상' 에 참여했던 7백만의 사람들(이 숫자는 분명히 과장됐을 것이다)은 참여 동기와 형태, 참여 이후의 소감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을 것이다. 따라서, 충분한 조사 없이 뭉뚱그려서 단일한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에 빠지는 일이다.

단순화의 위험은 다른 곳에도 있다. 6월의 많은 상징들, 즉 빨간 티셔츠, Be the Reds, 태극기, '대~한민국' 등의 상징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봤던, 혹은 보고자 하는 것을 끌어냈다. 빨간색에서 레드컴플렉스의 해소를, '대~한민국' 에서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를, 그리고 태극기 패션에서 경건주의의 쇠퇴를 인식했다. 그러나 그 해석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 해석이 다양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단순화의 위험을 넘어서 붉은악마 현상을 인식하게 되면 그 현상이 '모호함' 이라

는 특징을 지녔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역설적이게도, 이 모호함은 붉은악마 현상에서 가장 명확한 사실, 즉 이 현상이 위로부터의 동원과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참여의 결합이라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국가와 자본은 예고된 대중의 자발적 '광화문 습격사건'을 환영했고, 나아가 '시청 앞의 열린음악회'로 화답했다(이동연 2002). 붉은악마 현상을 낳은 주체의 분명함은 다시 성격의 불명확함을 의미한다. 두 주체의 만남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불확정적이기 때문이다.

'붉은악마 현상'은 그 상징이 모호했고, 그 해석이 다양했으며, 어느 특정 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6월 그 자체는 상징이며 기표로 인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6월이 지난 후에, 정확히는 그때부터 붉은악마 현상은 상징투쟁의 장소였다. 모호한 상징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다시 말해 붉은악마 현상을 특정한 기의로 고정시키려는 상징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글 역시 그런 상징투쟁에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상징투쟁의 장소를 횡단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붉은악마 현상에 참여했던 주축 세력, 즉 소위 'R세대'나 'W세대'라 불리는 대학생들의 의식을 검토함으로써 이 모호함에 접근하고자 한다. 대학생들의 의식이 붉은악마 현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의식 전체를 설명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 또한, 이 글에서 활용된 자료가 대학생들의 의식 전체를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1] 그러나 이 자료가 붉은악마 현상을 바라보는 한 시각을 정당화시키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제 놀 때가 됐다

이제 본격적인 상징투쟁으로 들어가기 위해 붉은악마 현상의 원인을 검토해 보자.

---

1 대학생들의 의식을 알기 위해 이 글이 활용한 자료는 지난 7월 연세대학교에서 여름학기 과목으로 '사회학'을 들었던 학생들에게 월드컵에 관련한 보고서를 요구해 얻은 것이다. 보고서는 총 53부가 제출됐다. 보고서는 다음의 질문에 답하도록 되어 있다. ① 거리응원(경기장 관람을 포함한 집단적 응원)에 언제부터 왜 참여하게 됐는가? ② 자신이 응원을 하면서 했던 행위, 느낌, 인상, 보고들은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③ 다른 사람들이 왜 거리응원에 참여했다고 생각하는가? ④ 월드컵이 끝난 지금 거리응원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것은? ⑤ 월드컵 전과 후에 이웃, 나라, 혹은 자신에 대해 변화한 생각이 있는가? ⑥ 월드컵이 우리에게 혹은 나에게 무엇을 남겼다고 생각하는가? 보고서를 낸 학생들은 학년과 전공이 다양했고, 남녀성비는 약 6대1이었다. 표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구학적 통계는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총 53명 중 21명이 거리응원에 참여하지 않았다. 물론, 거리응원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도 대부분 경기를 시청했고, 경기를 한 번도 시청하지 않은 학생은 없었다.

붉은악마 현상의 원인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즐거움에 대한 추구와 민족주의이다. 어느 것이 정확한지 파악하기 위해 일단 원인이 될 만한 것을 나열해 보자.

모든 사회 현상이 그러하듯 붉은악마 현상에도 직접적인 원인과 구조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 먼저 붉은악마 현상을 가능하게 한 아주 직접적이고 명확한 사실들을 지적해 보자.

첫째, 우리 국가대표팀의 예상을 초월한 성적이다. 지나간 월드컵의 성적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언론의 과잉보도에 너무나 식상해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대표팀의 성적은 너무나 대단한 것이었다. 국가대표팀은 말 그대로 신화를 창조했고, 사람들은 그것에 신기해했으며 기뻐했다. 사람들은 대표팀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동일시했고, 그곳에서 강해진 자신을 확인하는 기쁨을 누렸다. 승리는, 그것도 기대를 훨씬 초과하는 승리는 사람들을 모이게 한 가장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2]

둘째, 붉은악마이다. 축구를 좋아하는 이 자발적인 서포터 그룹은 응원 문화가 불모에 가까웠던 97년부터(비공식적으로는 그 이전부터) 운동장을 붉은 색으로 도배하려는 목표 아래 응원 구호와 노래를 가다듬어 왔으며, 응원 문화의 민주화를 위해 거리응원을 기획했다. 이런 노력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승리의 기쁨을 집안에서 맞이했을 것이다. 붉은악마는 거리응원에도 회원들을 배치할 정도로 치밀했고, 그들의 노력은 대표팀의 선전과 더불어 예기치 못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셋째, 국가·자본·미디어의 총체적인 선전이다. 국가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자본과 미디어는 돈을 위해 월드컵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물론, 이것은 앞의 원인에 비해 부차적이다. 우리는 그 이전의 월드컵에서 국가와 자본에 의해 확대재생산 됐던 '16강 진출' 을 수없이 봐왔다. 결국에는 그렇게 계산했던 경우의 수를 다 비켜갔고 사람들은 곧 차분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넷째, 거리응원이 무척이나 재미있다는 점이다. 거리응원은 참여자들에게 이제까지 느끼지 못한 집합적 즐거움을 제공했고, 사람들은 이 새로운 하나됨의 즐거움에 탐닉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하룻밤에 수백 번씩 하이-파이프를 하고, 기차놀이

---

2 이 점은 우리 시민들이 보여준 놀라운 질서 의식의 한 원인이기도 하다. 예기치 못한 승리를 축하하는 축제의 자리에 어느 나라 국민들이 소위 깽판을 치겠는가.

를 하고, 어깨동무를 하는 즐거움. 이 생면부지의 즐거움에 사람들은 매혹됐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이것은 새로운 즐거움이었다. 광장에서의 경험은 피시방, 노래방, 비디오방 등 각종 방 문화를 통해 갇힌 즐거움을 느꼈던 젊은 세대들에게, '열린 즐거움' 이라는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했다. 이 열린 즐거움은 그들을 다시 붉은 광장으로 이끄는 마약과 같은 것이었다.

이상이 붉은악마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일 것이다. 만약 이 네 가지가 없었다면 붉은악마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직접적인 원인만으로 붉은악마 현상의 원인을 완전히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 이 현상에는 직접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좀더 구조적인 원인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구조적인 원인을 나열해 보자.

먼저, 억압적 일상에서의 탈출 욕구이다. 세대를 불문하고 우리 사회에서 일상의 삶은 억압과 짜증의 연속이다. 중고등학생들에게 학교는 억압의 장소이지 즐거움의 장소가 아니다. 성적과 취업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실적을 강요당하고 실직을 위협받는 직장인들에게, 당위와 현실 사이의 인지 불일치를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일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탈출구가 필요했다. 나아가 비합리적인 지배세력들의 아귀다툼에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일탈이 필요했다. 거리응원은 이 지겨운 일상에서의 탈출구를 공식적으로 제공했고, 사람들은 별 위험이 없는 이 놀이에 참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다.

둘째, 민족주의이다. 민족주의는 사람들의 자발성에 명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군사적 권위주의에 길들어진 30~40대의 어른들은 차치하더라도, 교복과 두발 단속에 길들어져 있던 아이들 역시 거리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놀자는 것 이외의 명분이 필요했다. 민족주의는 이런 명분으로서는 최상의 것이었다. '민족의 승리' 라는 명분을 통해 교통 질서를 극복할 수 있었고, 거리 행진을 할 때 연도의 어른들이 보내준 박수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됨과 자부심을 주었다. 너무나 명분이 확실하기에 전혀 위험이 없는, 그리고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통해 더욱 증폭되는 즐거움. 민족주의는 사람들을 불러모았고, 그들을 어울리게 했으며, 어울림을 통해 하나되는 즐거움을 제공했다.

셋째, 지난 시절 독재정권이 만들어 놓은 스포츠 공화국 역시 거리응원의 중요한 요인이다. 대한민국에서 스포츠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다. 그것은 과거에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욕망을 배출할 수 있는 분출구였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적어도 남자들에게 스포츠는 체화된 본능이었다. 아침에는 NBA와 MLB을 검색하고, 저녁에는 핸드폰을 눌러 프로야구 경기의 성적을 확인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또 하나의 삶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스포츠 공화국에서 스포츠는 민족주의와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 멀리는 양정모부터 가까이는 박세리과 박찬호에 이르기까지, 스포츠를 통해 민족과 자신을 접합하고 절망과 희망을 세뇌받아온 사람들에게 월드컵을 향한 열광은 미리 예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새로운 매체의 발달, 즉 인터넷과 핸드폰이 없었다면 거리응원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6월 이전까지 인터넷과 핸드폰은 개인주의를 상징하는 매체로 해석됐다. 그러나 게시판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독특한 인터넷 문화는 이미 참여적·수평적 소통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고, 핸드폰은 움직이는 소통 매체로서의 역할을 했다. 자본의 광고판인 전광판과 어우러졌을 때 이 새로운 매체는 집단적 참여와 열광을 가능케 하는 매체로 즉각 활용됐다.

이제까지 붉은악마 현상의 원인을 열거해봤다. 이 모든 것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붉은악마 현상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구조적인 원인은 항상 존재했던 것이니만큼, '붉은악마 현상' 의 핵심적인 원인으로서는 부족하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역시 직접적인 원인, 그 중에서도 응원의 즐거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다른 요인들은 강도를 제외한다면 과거에도 있었다. 그렇지만, 거리응원과 그것이 갖는 독특한 즐거움은 붉은악마 현상의 가장 독특한 측면이면서 또한 처음 있는 일이었다. 붉은악마 현상의 원인을 단순화한다면 억압적 일상에서의 탈출 욕구와 거리응원에서의 즐거움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보고서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많은 학생들이 위에 지적된 원인들을 하나 둘씩 지적하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즐거움에 대한 추구를 꼽고 있다.

>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만나는 사람들에게 '왜 거리응원에 참여했는가?' 하고 물었다. 여러 가지의 대답 중에 가장 일반적인 대답은 거리응원이 즐겁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사회과학계열 98학번).

> 단연 즐거워서이다. (……) 사람들은 경기를 하나씩 치러가면서 거리고 뛰어나가 응원을 하고 축제를 하는 것이 엄청나게 즐겁다는 것을 스스로, 그리고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다. (……)

꽉꽉 막혀 있던 욕구의 봇물이 현대 사회의 댐에 갇혀 있다가 월드컵이라는 구멍으로 터져 흘러나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줬다' 라는 식의 언론 멘트는 슬픈 코미디다(상경계열 97학번).

나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즐거움을 얻기 위해 응원에 참가한 사람이 대다수가 아닐까 한다(화학공학과 97학번).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붉은악마 현상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즐거움에 대한 추구였다. 한 학생의 말처럼 거리응원은 "온갖 근심걱정과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순도 100%의 마약"이었다. 이런 해석은 기존의 언론매체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민족주의적 해석과는 일정한 거리를 둔다. 기존의 언론매체들은, 혹은 그곳에 글을 쓰는 필자들은 6월의 현상에서 민족주의를 읽어내려고 했다. 논자에 따라 좋은 애국주의에 대해 환호를 보내기도 하고, 반대로 나쁜 민족주의에 대해 염려하기도 했지만 그것을 관통하는 것은 민족 혹은 국가의 호명이 이들을 거리로 불러냈다는 점이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언론 혹은 논자들의 주장은 거리응원에 참여했던 젊은 세대들과 자신들을 이어보려는 '슬픈 코미디' 일 수 있다.

사람들을 거리로 불러낸 것이 즐거움에 대한 추구였다면, 이제 인과관계는 새롭게 구성될 수 있다. 사람들은 무엇보다 일상의 수많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탈출구를 찾고 있었고, 거리응원은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리에 나왔고, 즐기다 보니 민족주의 혹은 애국심을 느끼게 됐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월드컵이라는 국가대항전의 형식은 '대~한민국' 으로 상징되는 민족주의일 수밖에 없었지만, '오 필승 코리아' 를 죽어라 부르게 한 힘은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아니라 즐거움에 대한 추구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동질감과 공동체감을 느끼다 보니 애국심이 배가됐다는 것이다.

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공감대가 사실 어떠한 힘을 가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나 이번 월드컵 후에는 그것이 아주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에 따라 이웃이 그리고 나라라는 것이 조금은 친밀해졌다(기계전자공학부 99학번).

너무나도 좋은 추억입니다. 학점과 맞바꾼 8강이고 4강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대한민국 국민 중 하나라는 점을 강렬히 인식하게 됐다는 점입니다(상경계열 98학번).

위의 진술은 거리응원의 원인을 즐거움에서 찾았던 학생들의 진술이다. 이는 거리응원이 즐거움의 추구였지만 그 결과는 민족주의의 강화 혹은 국가주의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민족주의의 내용에 관해서 좀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들은 처음으로 함께 한다는 즐거움을 느꼈을 것이고, 나아가 자신의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느꼈을 것이다. (……) 거리응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해주었다.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과 내 이웃들과 교감하며 나라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배웠다(인문학부 02학번).

위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이 느낀 것은 민족 및 국가에 대한 사랑만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다. 많은 학생들이 월드컵 이후의 변화로 이웃에 대한 인식 변화를 꼽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민족주의로 환원할 수 없는 인식이다. 인간이 사회를 이뤄 살 수밖에 없다면 모든 공동체성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에는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보도됐듯이 대한민국 사람만이 아닌 외국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월드컵을 통해 세계인으로서의 정체성도 갖게 된 것이다.

붉은악마 현상의 주된 원인이 민족주의가 아니라 즐거움에 대한 추구였다면, 이 현상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먼저, 민족주의는 단지 기표라는 사실이다. 민족주의는 사람들을 불러모은 것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붉은악마의 응원구호에 따라 국가대항전을 즐기다 보니 나타나게 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통해 사람들이 민족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갖게 될 수 있지만, 아직 그것은 기표이고 스타일일 뿐이다. 그것은 단지 추상적인 사랑일 뿐 그것의 구체적 내용, 즉 사회개혁의 에너지이냐 아니면 국가주의로의 함몰이냐의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따라서, 정작 중요한 문제는 민족주의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민족주의냐 하는 점이다. 이제 우리 사회가 민족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하기 위한 상징투쟁으로 들어섰음

을 붉은악마 현상은 보여주고 있다.[3]

다음으로, 붉은악마 현상이 즐거움에 대한 추구였다면, 이는 우리 사회도 '놀 때가 됐음' 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붉은악마 현상은 새로운 시대의 출현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붉은악마 현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읽어야 할 것은, 사람들은 놀고 먹어야 한다는 단순한 사실이다"(홍성태, 2002).[4]

붉은악마 현상은 정치적·경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무엇보다 문화적 현상이다. 다시 말해, 6월 항쟁이 정치혁명이라면 붉은악마 현상은 문화혁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붉은악마 현상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하다. 놀며 즐기려는 사람들을 다시 통제하려하기보다 놀며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멍석을 깔아줘야 한다. 그것은 공간을 재구조화(광화문 세종로 등 다양한 공간의 문화 공간화)하고, 문화교육 및 축제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이동연, 2002).

새로운 감수성은 사회를 변화시키는가?

붉은악마 현상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들은 어찌했든 거기에서 한국 사회의 새로운 발전동력을 찾아내려 한다.[5] 특히 진보주의자들은 붉은악마 현상에서 새로운 사회개혁의 가능성을 찾아내려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붉은악마 현상에서 사회개혁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도출해내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것은 무엇보다 소위 'R세대' 나, 'W세대' 의 감수성이 사회개혁의 감수성, 좀더 정확히 시민운동의 감수성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앞에서 확인했듯이, 젊은 세대들이 거리응원에 참여한 것은 즐거움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것이 사회개혁의 가능성, 그리고 사회개혁을 추동하는 시민운동에의 참여 가능성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민운동이 즐거운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시민운동은 즐거운 것이 아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시민운동의 즐거움과 거리응원

---

3 민족주의에 관한 관점은 다양하다. 이 글은 민족주의가 근대에 구성된 것이라는 관점에 따른다. 이에 관해서는 졸고(김정훈, 2002) 참조.

4 홍성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소비사회로 전환했고, 소비사회는 사람들이 각자의 취향을 중요시하면서, 개인주의의 우회로를 통해 공공성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사회이다. 붉은악마 현상은 이런 구조적 전환을 배경으로 통치와 이윤의 논리에 지배되는 우리의 도시 공간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 으로 해석될 수 있다.

5 물론, 비판적인 논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는 권혁범(2002), 인권운동사랑방(2002) 참조.

에 참여하는 즐거움은 다른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상당히 깊은 강이 있다.

적어도 붉은악마 현상의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적어도 붉은악마 현상에 참여한 사람들의 감수성이 그 깊은 강을 건너는 힘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몸에 남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지금 10대나 20대도 월드컵 경험이 어떤 계기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6] 따라서 6월의 경험이 만들어낸 새로운 감수성이 사회개혁과 시민운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시 6월의 경험에서 시작해보자. 많은 사람들은 6월에서 획득한 새로운 감수성으로 자발성, 광장성, 민족적 자긍심을 지적한다.[7]

먼저, 모든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붉은악마 현상의 압도적인 특징은 자발성이다. 그것이 즐거움에 대한 갈망이든 아니면 민족적 에너지의 분출이든 그것의 특징은 자발성의 분출이고, 그 자발성이야말로 붉은악마 현상을 매력적이게 만든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시민운동의 핵심적인 요소가 자발성인 만큼 붉은악마의 자발성을 사회개혁, 시민운동과 연관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붉은악마 현상의 일차적인 의미가 문화적인 현상이라면, 붉은악마 현상이 시민운동에 주는 함의는 우선 문화운동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월드컵 이후의 일에 가장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시민운동 단체가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였다는 사실은 이런 의미를 명확히 해준다. 새로운 구조적 변동이 있었고, 그런 문화적 욕구의 변동에 적합한 시공간이 창출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붉은악마 현상의 직접적인 문제제기이고, 새로운 문화 공간의 창출과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 체육으로의 전환은 시민운동이 적극적으로 제기할 문제이다.

그러나, 이 자발성이 '시민 없는 시민운동'을 '시민 있는 시민운동'으로 직접적으로 전환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적인 의미로 붉은악마 현상을 해석하면 대중들은 즐거움을 누릴 권리가 있고, 붉은악마 현상은 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민운동은 즐거움 그 이상이다. 다시 말해

---

6 정태인(김일영 외, 2002) 좌담에서 인용.

7 학생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이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이 외에 흥미로운 사실은 학생들이 월드컵을 통해 민족적인 '희망' 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희망'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기적 같은 승리의 경험, 그리고 응원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이를 통해 자신의 미래에 '희망'을 갖게 됐다고 진술하고 있다.

서, 시민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축제와 다른 즐거움에 대한 감수성, 즉 시민운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감수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붉은악마 현상은 즐거움에 대한 감수성은 보여주었지만 운동적 감수성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보고서를 제출한 학생 중 그것이 사회개혁의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본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그것이 국가주의적 동원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염려하거나, 역으로 새로운 민족적 도약이라는 정부측 담론과 유사한 의견을 내는 학생들이 있었다. 물론, 붉은악마 현상의 핵심인 자발성이 새로운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시민운동적 자발성으로 전환되는 데에는 많은 매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시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광장성, 즉 모여서 노는 즐거움을 경험했다. 50대 이상의 세대들에게 희미하게 남아 있는 '공동체에 대한 향수' 로서의 광장성, 그리고 30~40대에게 있는 '절망과 희망의 교차지' 로서의 광장성이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는 '모여서 노는' 즐거움으로 체험된 것이다.

이것은 대학생들에게는 진정 새로운 체험인 것 같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이 새로운 체험에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 신촌 로터리 근처에서 한 여학생과 그 친구 몇 명이 도로에 앉아서 케이크와 함께 생일 파티를 했는데 순식간에 수백 명이 둘러싸서 축하를 해주었다. '생~일 축하' 를 외치면서 말이다.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일탈적인 의식은 신선한 에너지를 충전시켜줬다(상경계열 97학번).

> 거리응원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커다란 군집 행사라 생각합니다. 시위 같은 특정 집단을 위한 거대한 인파가 아닌 오로지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 빨간 옷을 입고 모인 그 거리응원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 벅차고 당장이라도 뛰어나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언제 이렇게 모여보나'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보건행정학과 02학번).

젊은 세대들의 광장 체험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개인주의를 경유해서 광장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 이전의 세대와는 달리 그들은 각종 방 문화를 통해 스스로를 고립시켰고, 인터넷을 통해 비속어까지 써가며 비타협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고집한 세대이다. 이 세대들이 거리응원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만남의 즐거움,' 그것도 직접적 대면의 즐거움을 획득했다는 것은 시민운동에 있어 일정한 함의를 가진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어울림에 대해 거부감을 극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 많은 매개가 필요하다. 그들은 광장으로 진출하기는 했지만 무정형적이었고, 열기가 가라앉을 쯤 급속히 퇴각했다. 지방선거 투표율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이 획득한 광장은 정치적 광장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들의 광장에서의 경험이 지속적인 참여를 낳을지는 미지수이다. 어쩌면 우리는 그들을 다음 월드컵 때에나 만날지도 모른다. 다만, 여전히 그들의 주 활동무대인 인터넷에서의 활동을 강화해, 작은 일이라도 함께 나누려는 노력을 한다면, 그들을 다시 불러내려 할 때에 그들이 이전보다는 조금 쉽게 호응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 섞인 예상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민족적 자긍심' 을 경험했다. 비록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해서이긴 하지만 그들은 거의 1백여 년에 가까운 패배적·방어적 민족주의의 역사를 떨구어내고 민족적자긍심을 경험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우리는 강팀' 임을 확인하고, 이제는 선수들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의 패배주의적 습성을 벗어나 자신감 있게 세상과 맞서 싸우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8] 또한 이들은 민족적 자긍심을 대내적인 적대자들에게도 활용한다. 자신들에게 패배주의적, 식민주의적 사고를 강요해 왔던 지배세력에게 그들은 이제 민족적 자긍심으로 공격한다. 거리에서 확인되는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과 함께 이 민족적 자긍심이 과거의 것과 다른 것임에는 분명하다.

물론, 이 자긍심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역시 규정될 수 없다. 민족주의는 두 개의 얼굴을 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국가주의와 접합해 관제 민족주의의 성격을 띨 수도 있고, 시민권과 접합해 사회적 연대를 지향할 수도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부국강병과 경제제국주의적 성격을 가질 수도 있고, 세계화 시대에 약소국간의 연대를 지향하고 다양성의 공존을 지향하는 이념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붉은 악마 현상의 경험이 관제민족주의에 포섭되어 이제는 '경제 4강' 의 자원이 될 수도 있지만,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와 결합되어 '사회적 연대' 와 '평등' 의 자원, 즉 이제는 '복지 4강' 의 구호와 연결될 수도 있다. 그리고 누구에게 접합될지 모르는 '정치 4강' 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지는 앞으로의 의미

8 이런 긍정적 민족주의 담론은 딴지일보(2002) 참조. 학생들 역시 거리응원이 남긴 것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꼽고 있다. 이것은 물론 학생들이 인터넷의 주 이용자들이고, <딴지일보> 같은 인터넷 매체가 민족적 자긍심이라는 담론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양자간의 상호작용 결과일 수 있다.

투쟁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붉은악마 현상과 시민운동

월드컵이 끝난 직후, 붉은악마의 홈페이지에는 "붉은악마는 축구장으로 되돌아갑니다"란 팝업창이 떠 있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 많은 추억과 성과를 남긴 채 월드컵은 끝났고, 이제 사회 각계 각층에서 월드컵 기간 동안 우리가 보여준 에너지를 다른 분야로 파급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붉은악마의 몫이 아닙니다. 월드컵 이후에 남겨진 많은 과제들은 사회 각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넘기고 우리는 축구장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붉은악마의 말대로 월드컵 이후의 일들은 그들의 일이 아니듯이, '붉은악마 현상'을 사회개혁과 시민운동으로 발전시키는 일은 이 현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몫이 아니다. 그것은 붉은악마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시민운동의 동력으로 만들어가려는 시민운동의 몫이다. 붉은악마가 축구장의 서포터스라면, 시민운동은 시민사회의 서포터스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밝혔던 붉은악마 현상은 즐거움의 추구였고, 그것은 문화적 시민운동을 촉발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시민들이 억압에서 해방되고 싶어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장이 없다면,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의 노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붉은악마 현상이 즐거움의 추구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이 다른 시민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할 수는 없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민운동은 새로운 감수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붉은악마 현상과 시민운동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러나 시민운동이 시민사회라는 운동장에 '사회 변동을 위한 붉은악마'를 더 많이 불러낼 수는 없을지라도, 시민들을 쫓아내지 않기 위해서는 6월의 결과인 민족주의를 시민운동적 관점에서 재고찰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민족주의를 전체주의적 사고로 무조건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개혁의 동력으로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계사적으로 민족주의는 해방적 측면과 억압적 측면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그것은 우리 역사에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민족주의 자체의 성격이 아니라,

그것의 긍정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 내재한 민족주의적 열정을 생각한다면, 민족주의를 등한시하는 것은 대중들을 관제 민족주의로 흡수되게 방관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6월의 경험은 시민운동의 동력이 아니라 암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시민운동은 민족주의에 시민적·개방적 내용을 어떻게 접합할 것인가의 문제를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만약 이 고민이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면 6월의 경험은 역으로 시민운동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시민운동이 '붉은악마 현상'에서 얻은 경험, 즉 자발성, 광장성, 그리고 민족적 자긍심에 시민운동적 내용을 부여하고, 그것을 통해 '열린 시민적 민족정체성'을 구성한다면 민족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면서 그것을 사회개혁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붉은악마가 주역을 맡았던 올해 6월의 경험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사실은 우리 사회가 너무나 역동적이라는 점이다. 광주에서, 6월 항쟁에서, 총선연대에서 알 수 있듯이 항상 활동가들이 모르는 사이에 대중들은 움직였고 폭발했다. 그래서 아마 '다이나믹 코리아'는 다음 축제를 준비하고 있을지 모른다. 붉은악마처럼 꾸준히 그때를 준비한다면, 다음 축제의 마당은 시민운동에 의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

김정훈 kjhandam@hanmail.net | 한신대학교 학술원 책임연구원. 사회학 박사. 국가, 시민사회, 사회운동, 북한과 관련된 논문 다수.

참고문헌

권혁범, 2002. 「또 하나의 월드컵 이야기: 붉은악마 현상에 대한 나의 생각」, 『시민과 세계』, 제2호.

김일영 외, 2002. 「좌담: 2002년 6월, 우리들의 대한민국」, 『시민과 세계』, 제2호.

김정훈, 2002. 「세계화 시대의 통일민족주의」, 『경제와 사회』, 제55호.

김종엽, 2002. 「2002 월드컵 응원문화와 상징체계」, 한국이론사회학회 특별 컨퍼런스 〈월드컵과 신공동체 문화〉 자료집.

딴지일보, 2002. 「시리즈, 우리는 강팀이다」, http://www.ddanzi.com/ddanziilbo.

박숙미, 2002. 「월드컵과 여성」, 한국이론사회학회 특별 컨퍼런스, 〈월드컵과 신공동체 문화〉 자료집.

이동연, 2002. 「카니발의 문화와 시민운동의 과제」,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 공동주최 월드컵 평가 대토론회 〈월드컵은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자료집.

이병혁, 2002. 「응원과 시민문화」, 한국이론사회학회 특별 컨퍼런스 〈월드컵과 신공동체 문화〉 자료집.

이지원, 2002. 「월드컵 문화의 한일 비교」, 한국이론사회학회 특별 컨퍼런스 〈월드컵과 신공동체 문화〉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02. 「'붉은악마' 현상을 부추기지 말라」, 『인권하루소식』 6월 22일.

_____, 2002. 「논평: '붉은악마 현상을 부추기지 말라'에 부쳐」, 『인권하루소식』, 6월 27일.

조현연, 2002. 「두 개의 6월, 다른 시간과 같은 공간: 87년과 2002년 6월의 시청 앞」, 『시민과 세계』, 제2호.

홍성태, 2002. 「붉은악마 현상에 대한 사회형성적 의미」,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 공동주최 월드컵 평가 대토론회 〈월드컵은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자료집.

홍윤기, 2002. 「이 시대의 국가주의와 시민적 자율성: 아비투스와 에토스의 시민정치」, 『시민과 세계』, 제2호.